

제7강 현상학 I : 후설

◆ 후설의 순수의식의 현상학 ◆



※ 후설(Husserl, Edmond 1859-1938) 독일의 철학자. 주요저서, 『순수 현상학 및 현상학적 철학을 위한 여러 고안』(1913)

△ 현상학의 창시자, 후설

- 엄밀학으로서의 철학
- **자기소여성**(Selbstgegebenheit)의 추구 : 인간 본질로서의 **'의식'**의 중요성.
 - ⇒ **본질직관**(Wessensanschauung)
- **지각**
 - : 모든 인간 의식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. 지각의 분석을 통한 의식의 탐구.
 - : 1 차적으로 주어지는 의식 내용으로 현출다양하다.
 - ⇒ **에포케**(epoche, 판단중지, 괄호치기).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출다양을 보면서 **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본다.**

△ 후설 현상학의 주요개념

- 현출과 현상의 구분
 - ① **휠레**(hyle) :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.
 - ② **노에마**(noema)¹⁾ : 우리가 알고 있는 것. 의식 내면에서의 객관적 측면. 의미체.
 - ③ **노에시스**(noesis) : 휠레와 노에마 사이에 있는 무엇으로, 의식작용을 뜻함. 의식의 기능적, 작용적 측면.
 - ⇒ **노에마와 노에시스의 지향적 관계** ²⁾. 휠레, 노에마, 노에시스의 삼각구도가 중요.

※ 세가지 의미 작용

- ① 의미부여작용(Sinngebende)
- ② 대상화하는 작용(Vergegenstandliche)
- ③ 생동화하는 작용(Beseelende)

-
- 1) 노에마의 핵심은 대상 그 자체를 지시하고 대표하는 노에마적 의미이며, 노에마적 대상 자체이다. 관념적인, 의미적인 존재.
 - 2) 노에마, 노에시스는 의식의 가장 구체적인 상관자이며, 노에시스는 반드시 노에마를 갖고 노에마는 반드시 노에시스에 의해 사유(思惟)된다.